

[별첨 2]

2004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개요

1. 홍농~백수간 국도(77호선) 건설	1
2. 강화 교동도 연육교 건설	3
3. 천안제4지방산단 진입도로 건설	5
4. 아산만 산업철도 건설(포승-평택)	8
5. 의왕 ICD 철도 인입선 건설	10
6. 광양항 철도인입선 건설	10
7. 부산항 철도인입선 건설	10
8. 여천단지 철도인입선 건설	10
9. 아산만 방조제 배수갑문 확장	14
10. 수도권북부 내륙화물기지 조성	19

1. 홍농-백수간 국도(77호선) 건설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구 간 : 전남 영광군 홍농읍 칠곡리-백수읍 대신리(L=3.0km)
- 사업비(추정) : 555억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년

○ 사업추진 경위

- '99.11~'00.12 : 일반국도 등 노선조정 연구
- '01.7.3~13 : 관계기관 협의
- '01. 8.25 :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개정·공포

2. 사업추진의 필요성

○ 추진근거

- '01. 8.25 일반국도 77호선으로 승격된 미연결 구간으로, 교통불편 해소 등 지역숙원사업 해소도모('02. 6 : 영광군수 개설건의)

○ 추진사유

- 서해안의 관광자원 활용 등 지역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미개통 국도구간의 도로연결 필요

3. 사업추진체계 및 지원방식

○ 사업 수행주체 : 국가(건설교통부)

○ 사업 진행절차

- 예비타당성조사(사업시행여부결정) → 기본설계 시행 → 실시설계시행
→ 공사착수(선보상 후시공) : 전액 국고지원

4. 사업기대 효과

- 미개통구간의 도로연결로 지역생활권간 연계에 따른 전국차원의 균등한 간선도로 서비스제공과 서해안 관광산업 등 지역산업경제의 파급효과 증대

5.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 없음

작성기관	작성자	연락처
건교부 도로건설과	6급 김 인	504-9073

2. 강화 교동도 연육교 건설

1. 사업개요

- 위 치
 - 시 점 :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국도48호선 종점)
 - 종 점 : 강화군 교동면 봉소리
- 사업규모
 - 교 량 : L=2.3km (연육교 2.3km), B=12m
- 사 업 비 : 500억원
- 사업기간 : 2004 ~ 2009(6개년)

2. 사업추진의 필요성

- 추진근거 : 접경지역지원법
- 추진사유
 - 교동도는 우리나라에서 14번째로 큰 섬에 해당되나 남북분단에 따른 접경지역이라는 특수한 여건으로 그간 지역발전에 필요한 개발이나 투자가 저조
 - 또한, 해상교통의 불편 및 각종 규제(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인해 지역 낙후화가 심화됨.
 - 그러나 남북교류 협력이 확대되면서 교동도의 전략적 가치가 점차 증대되고 있어 향후 평화통일기반 조성차원에서 교동연육교사업을 접경지역지원사업으로 종합계획에 반영함
 - 재무적 경제적·수익성
 - 경제적 수익성만 보면 사업타당성이 다소 부족할 수도 있으나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도서민을 보호하고 물류비용 절감 등

간접적 수익제고

- 낙후 도서지역의 연육화를 통해 지역간 불균형 해소
- 도서지역의 특수성 해소로 지역간 균형발전 유도
- 도서민의 교통기본권 확보로 정주의식 고취

3. 사업추진체계 및 지원방식

- 사업 수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강화군)
- 사업진행절차
 - 행정자치부 : 종합계획수립 및 사업비 내시
 - 인천광역시 : 사업시행에 따른 행정지원
 - 강 화 군 : 사업시행
- 지원형태 및 수준
 - 자치단체 보조(70%), 정률지원

4. 사업 기대효과

- 지리적여건으로 낙후된 접경 및 도서지역의 교통여건 개선과 주민 정주의욕 고취

5.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 교동도 연육교 건설사업은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이나 관계부처 협의 및 대통령 재가로 '03. 2월 확정된 「접경지역종합 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국비투자 필요

작성기관	작 성 자	연 락 처
행정자치부 지역진흥과	행정주사 이준형	(02) 3703-5365

3. 천안제4지방산업단 진입도로 건설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위치 : 천안시 안서동 (천안 IC) ~ 차암동(제4산업단지)
- 사업량 : 도로개설 L=7.50km B=33m (고가교 695m, 터널 320m)
- 사업비 : 1,840억원
- 사업기간 : 2004~2007년

○ 사업추진 경위

- 2001. 11. 29 : 천안제4지방산업단지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충남고시 제01-182호)
- 2002. 6. 10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02. 11. 20 : 국고보조금 확정(폐수처리시설 사업비)
- 2003. 2. 7 : 보상계획 공고

※ 천안 제4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

-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직산읍 신갈리, 모시리, 업성동, 차암동 일원
- 면적 : 302천평 (사업비 1,405억원)
- 유치업종 : 기계 및 장비, 첨단, 조립금속
- 사업기간 : 2003~2005년(사업시행 : 천안시장)
- 부지면적 : 공공시설 : 92천평(30.5%), 분양면적 : 210천평(69.5%)

2. 사업추진의 필요성

○ 추진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시설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 27조(기반시설 지원)

○ 추진사유

- 산업물동량이 기존국도1호선(대로1-1호선) 및 고속도로 이용시, 기존 국도 1호선의 시가지 통과로 역말오거리 및 천안로사거리 등의 교통 혼잡이 매우 심각한 실정임
- 따라서 본 도로(광로2-2호선)의 개설로 교통소통 원활 및 산업단지 물류비 절감 등을 위해 천안 제4산업단지 진입로인 북부대로의 조속한 개설이 요구됨.

3. 사업추진체계 및 지원방식

○ 사업수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천안시장)

○ 사업진행절차 : 기본 및 실시설계 → 실시계획고시 → 편입토지 손실 보상 협의 → 편입토지 보상 → 공사입찰 → 공사 착공 → 공사준공

○ 지원형태 및 수준 : 전액국비지원

4. 사업 기대효과

-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물류비용 절감 및 기업경쟁력 강화
- 기존국도 1호선(대로1-1호선) 교통량 분산으로 도심지 교통난 해소
- 천안제2지방산업단지 및 제3, 제4산업단지, 백석농공단지와의 연계이용이 가능하여 투자사업효과 극대화
- 산업단지와 경부고속도로 천안IC를 연결하여 원활한 물류수송을 확보 하고,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공장 유치를 촉진하여 수도권 비대화 역제의 국가정책에 동조 및 국가경쟁력 제고
- 아산만권 신도시 개발 촉진
- 국도1호선 및 천안IC 일일교통량 : 98,914대(B/C 1.62)

5.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 해당없음

작성기관	작성자	연 락 처
건설교통부 입지계획과	토목사무관 김 주 명	• 전화번호 02-2110-8149 • FAX 02-503-7309

4. 아산만 산업철도 건설(포승-평택)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사업규모 : 포승~안중~평택간 27.0km 단선철도 건설
 - 사업기간 : 10년(설계3년 공사7년)
 - 총사업비 : 3,506억원('98 추정금액)
- 사업추진 경위
 - 아산만권 광역개발권역 지정 및 광역개발계획 고시(건설교통부, '94.12)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반영(건설교통부, '99.12)

2. 사업추진의 필요성

- 추진근거 : 「교통체계효율화법」 제3조 및 제5조
- 추진사유
 - 아산항과 공단의 화물수송을 위한 산업철도망 연결
 - 평택권역 광역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산업물동량 급증에 대비한 철도망 연계 구축

3. 사업추진체계 및 지원방식

- 사업수행 주체 : 국가(철도청)
- 사업진행 절차
 - 타당성조사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 → 용지분할측량 → 감정 → 용지매입 → 공사착공
- 지원형태 및 수준 : 예타시행시 재원 분담 검토

4. 사업기대 효과

- 수도권 기술, 인력 등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고 산업의 집적이 용이하므로 경인지역의 항만 및 제조업 기능의 분산 수용
-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계하여 새로운 서해안 개발축 형성
- 중국의 대경, 청도, 상해 등 임해개방지역의 개발에 대비한 대중국 진출의 거점으로 육성

5.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 없음

작성기관	작성자	연락처
기획본부 경영기획과	토목사무관 김 성 수	• 전화번호 : 042-481-3209 • FAX : 042-472-3043

6. 의왕 ICD 철도인입선 건설

7. 광양항 철도인입선 건설

8. 부산항 철도인입선 건설

9. 여천단지 철도인입선 건설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주요 간선망으로부터 항만·산업단지·복합화물터미널(ICD)를 연결하여 복합운송체계를 구축

○ 사업추진 경위

- 2003. 9월 「동북아물류중심국가추진로드맵」 추진과제 계획 수립 요청
- 2003.10월 「동북아물류중심국가추진로드맵」 세부추진계획 수립 제출
- 2003.12월 「국가물류비절감과물류체계효율화대책」 추진과제로 반영

2. 사업추진의 필요성

○ 현 황

- 일부 항만과 산업단지를 제외하고는 철도연결 부재
- 철도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항만터미널 게이트밖에 설치되어 트럭에 의한 이중환적이 발생

○ 문제점

- 항만 및 산업단지·유통단지 개발시 철도와의 연계수송체계를 고려하지

않고 독자적인 운송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철도의 장점인 장거리·대량 수송성, 에너지 고효율성, 환경친화성 등의 장점을 가진 산업지원 철도망구축 기반이 미약

- 철도주요간선과 연결되는 철도망이 물류생산기지 및 유통설비와 연결되지 않아 미연결구간에 대한 도로운송 및 상·하역작업 등 추가비용 발생으로 인한 국가물류비 증가
- 철도망의 구축시 물류수송을 위한 기본설비(하치장, CY, 적하설비, 창고 등)부분에 대한 투자가 고려되지 않아 대규모 물동량의 흡수와 처리에 한계

○ 개선방안

- 국가 산업단지·항만 중 철도가 연결되지 않는 구간을 인입철도로 우선 연결
- 도로·항만의 확충 및 개발에 따른 물류유통체계·수송수요 등을 조사·분석하여 철도인입선 연결사업을 단계적으로 선정·추진

철도인입선 연결 대상

(거리 : km, 금액 : 억원)

과업명	연결구간	거리	사업기간	소요예산		
				합계	'04~'08	'08이후
여천단지	홍국사~공단	5.0	'05~'11	1,365	689	676
부산항	부산진~부산항	6.1	'05~'10	1,067	577	490
광양항	광양~항만	7.5	'05~'10	1,312	983	329
의왕ICD	부곡~의왕	3.7	'05~'08	647	647	-

3. 사업추진체계 및 지원방식

- 사업수행 주체 : 국가(철도청)
- 사업진행 절차
 - 타당성조사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 → 용지분할측량 → 감정 → 용지매입 → 공사착공
- 지원형태 및 수준 : 전액 국고지원

4. 사업기대 효과

- 동북아 육·해상 운송망의 거점화를 수행함으로써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도약하는데 기여
- 항만·산업단지 등과 철도를 연계한 복합운송체계 구축으로 수송시간 단축 및 물류비 절감
- 도로교통의 한계에 따라 늘어나는 물동량의 철도수송으로 도로교통 혼잡 완화
- 운송업계파업 등의 비상사태시 국가물류 운송망 확보

5.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 없음

작성기관	작성자	연락처
기획본부 경영기획과	토목사무관 김 성 수	· 전화번호 : 042-481-3209 · FAX : 042-472-3043

9. 아산만 방조제 배수갑문 확장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사업지 : 충남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 사업규모 및 물량
 - 배수갑문 구체(폭×높이×련수=10m×6m×15련)
 - 물관리자동화시설(TM/TC) 1식
- 총사업비 : 75,850백만원

구분	공종	원수	사업비 (백만원)	비고
계			75,850	
○순공사비			69,665	
- 토목	계		41,635	
	배수갑문구체	B=150m	23,438	어도포함
	가체절	L=2.4km	8,604	
	취부배수로	L=2.3km	8,052	
	혈기 및 포장복구		1,541	
- 기전	배수갑문		26,580	
- TM/TC		1식	1,450	
○용지매수비		-	-	
○측설공감비			5,479	
○사업관리비			706	
○잡지출		-	-	

- 사업기간 : 2006 ~ 2010(5개년)

o 사업추진 경위

- '94. 12 : 안성천 치수대책조사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 배수갑문 확장 필요성 제기(건교부)
 - '99. 12 : 수해원인조사보고서(건교부)
 - 배수갑문 확장 필요(120m→310m, 190m 확장)
 - '00. 3. 7 : 삼교호·아산호 주변 침수원인분석 지시(농림부)
 - '00. 3. ~ 12 : 삼교호·아산호 주변 침수원인분석(농기공)
 - '02. 10. 24 : 배수갑문 홍수배제능력 검토지시(농림부→농기공)
 - '02. 11. 30 : 배수갑문 홍수배제능력 검토 농림부 제출
 - 배수갑문 확장 필요(120m→270m, 150m 확장)
 - '02. 12. 26 : 배수갑문 홍수배제능력 재검토 지시(농림부→농기공)
 - 전문가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심층검토분석
 - '03. 1. 8 : 전문가 전담팀 구성 및 재검토(농기공)
 - '03. 6. 7 : 아산방조제 배수갑문 확장 요청(건교부→농림부)
 - 아산배수갑문 : 120m→290m, 170m 확장
 - 배수갑문 확장전까지 건교부 홍수통제소와 협의하여 방조제 관리수위를 최대한 낮추어 운영 협조요청
 - '03. 8. 14 : 아산호주변 저지대 침수방지대책 농기공기술자문회의 실시
 - 배수갑문 확장(담수호 수위 저하효과)
 - 하천합류구간 상류부 하상준설(하천수위 저하효과)
 - '03. 8. 21 : 재검토 결과 농림부 제출(농기공→농림부)
 - 배수갑문 확장 필요(120m→270m, 150m 확장)
 - 안성천 수계 중상류하천 하상준설 필요
 - '03. 11. 27 : 아산호주변 저지대 침수방지대책 사계·학계 전문가 기술자문회의 실시
 - 배수갑문 확장이 필요 : 150m (120m → 270m)
 - 안성천과 진위천 하상준설 시행 되어야 침수방지 효과 기대됨
- ※ 참석 : 교수, 국립방재연구소, 건교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경기도, 평택시, 농림부 및 농업기반공사

2. 사업추진의 필요성

○ 추진근거

- 아산호 배수갑문 홍수배제능력 분석보고서(농업기반공사)
- 안성천수계 하천정비기본계획(건설교통부)
- 2002년 홍수피해 종합보고서(한국수자원학회 · 건설교통부)
- 2002년 호우피해 현장조사 보고서(국립방재연구소 · 행정자치부)

○ 추진사유

-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립 중인 안성천유역 종합치수계획, 안성천하천정비기본계획 안성천 홍수위 EL.+4.50m와 연계 필요
- 아산호의 100년빈도 홍수위가 EL.+5.54m로써 당초 설계홍수위 EL.+4.50m를 1.04m상승하므로 배수갑문을 추가로 확장(150m 증설)하여 아산호의 홍수위를 낮춰야 한다고 제시함
- 배수갑문 확장시 담수호 구간에서는 홍수위가 1.04m 낮아 지므로, 주택, 농경지 및 도로 등 상습침수지역의 침수방지 효과 제고
- 사계, 학계 및 농기공전문가 자문회의결과 배수갑문 확장 필요 제기함

○ 사전절차 추진내용

- 안성천수계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안성천수계 배수갑문시점방조제홍수위가 EL.+4.50m로써 하천정비계획시행에 우선하여 배수갑문 확장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 전담팀에 의한 배수갑문 홍수배제능력 검토 및 기술자문회의 2회 실시
- 안성천수계 주변 주택, 농경지 등 상습침수지역 침수방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건교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성천유역종합치수계획(’02. 12~’05. 6)”과 종합시스템구축 협의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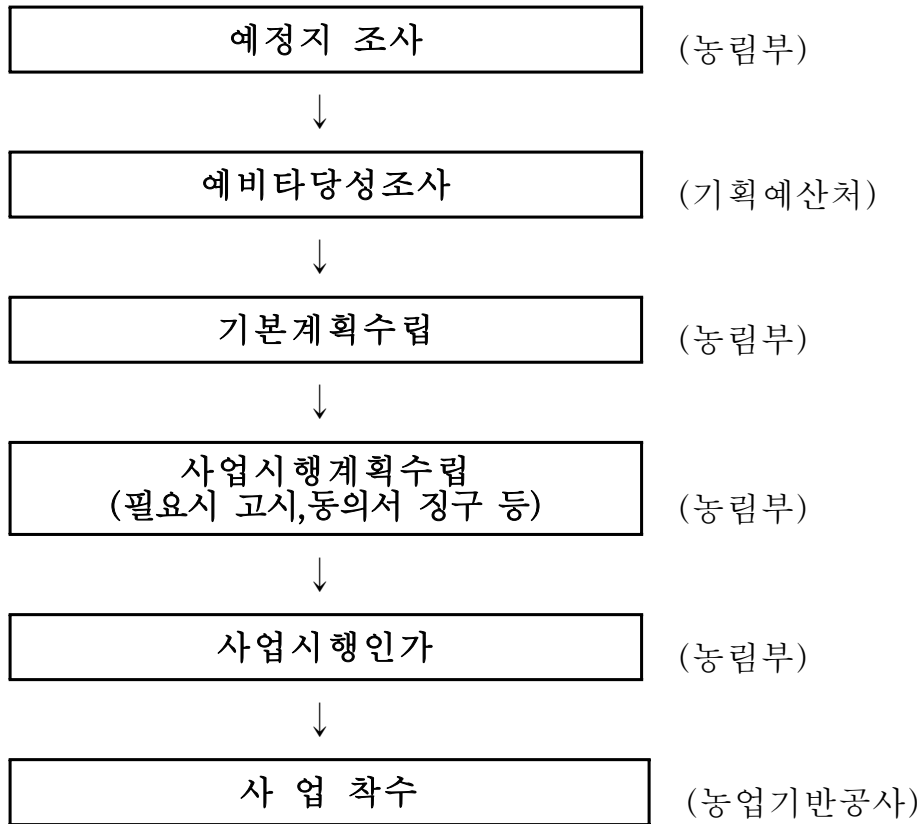
3. 사업추진체계 및 지원방식

○ 사업 수행주체 : 농업기반공사

○ 사업진행절차

- 기관별 업무 분장
 - 농림부 : 사업시행계획 수립
 - 농업기반공사 : 사업시행
 - 건설교통부 : “안성천유역종합치수계획”에 하상준설 등 중 · 상류하천 저지대 침수방지대책 포함하여 추진

- 아산배수갑문확장사업 흐름도(근거 : 농어촌정비법)



○ 지원형태 및 수준

- 국고보조
- 전액지원

4. 사업기대 효과

- 배수갑문 확장시 담수호 구간에서는 홍수위가 1.04m 낮아 지므로 상습 침수 농경지의 배수개선사업 대상규모가 감소하고, 평택, 안성, 용인, 오산 및 화성시 등의 주택 및 도로 등 상습침수지역의 침수방지 효과 발휘
- 하천 주요지점과 배수갑문을 연결하는 홍수예경보시설(TM/TC 등)을 설치하여 담수호 수위를 탄력적으로 관리하고 홍수상황에 따라 배수갑문을 최적의 상태로 조작·운영하는 등 홍수관리 능력 증대
- 배수갑문 확장위치를 아산방조제 종점부근(충남 아산 영인면)으로 함으로써 양방향 배제에 따른 담수호의 수질개선효과가 기대됨
- ※ 사업효과의 계량화는 안성천수계정비사업과 종합하여 산출하는 것이

타당함

5.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 유입하천 홍수위를 저하시켜서 저지대침수방지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안성천과 진위천의 합류부 상류구간에 퇴적된 하상토 준설의 병행시행이 요구되므로 “안성천유역종합치수계획”에 안성천수계 중상류 하천에 대한 하상준설계획이 반영되어야 함

10. 수도권북부 내륙화물기지 조성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사업지 : 경기도 파주시 봉서리
- 사업기간 : 2004~ 2011
- 사업규모 : 12만평(복합터미널 67천평, ICD 52천평)
- 이용물동량
 - 일반화물 : 1,839천톤/년(발생량 58,330천톤/년의 3.15%)
 - 컨테이너 : 285천TEU/년(발생량 759천TEU/년의 37.5%)
- 총사업비 : 241,199백만원
 - 민간 : 160,677억원(ICD 5.2만평, 터미널 6.7만평)
 - ※ ICD(Inland Container Depot) : 내륙컨테이너기지
 - 정부 : 80,622억원(철도 3.15km 도로 이설 및 확장 2km 등)

○ 사업추진 경위

- 동북아 물류중심지 국가실현(현 정부의 국정과제)
- 수도권 북부지역 물류기지 입지선정 및 경제적 타당성조사 용역
 - ※ 2003.3 ~2003.12(교통개발연구원)

2. 사업추진의 필요성

○ 추진근거

- 국가물류비 절감을 위한 추진대책강구(장관지시사항, '03.3.30, 11.17)
- 건설교통부 물류개선 종합대책(물류개선기획단, '03.3.10)
- 연구용역결과 경제적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교통개발연구원)

○ 추진사유

- 남북교역화물이 609천톤('97) → 1,092천톤('02)으로 대폭증가와 개성공단 조성(1·2단계 400만평)되고, 남북 육상교통망이 연결로 남북교역 화물이 해상에서 육상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물류비절감을 위한 내륙화물기지 건설필요
 - ※ 해상에서 육상으로 전환시 물류비 절감 : 800불/TEU → 132불/TEU
 - ※ 개성공단 1·2단계 조성시 화물은 96만 TEU/년 발생(남측통과 17.3만 TEU), 3단계조성시 화물은 384만TEU/년 발생(남측통과 138.2만 TEU)
- 수도권 북부 파주시 인근지역에 LG.Philips LCD공장과 관련부품산업이 약 100만규모 공장건설(1단계 2006년 건설완료)로 2017년기준 화물이 652.9천톤/년 발생하는 등 화물이 57,788천톤/년('11년) 발생
- 향후 남북철도와 대륙간 철도가 연결될 경우 남북통과화물이 중국·러시아·유럽 등지에 343천TEU/년 ~ 746천TEU 발생

○ 사전절차 추진내용

- 5대권역 내륙화물기지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중
 - * 수도권(운영중), 부산권(운영중), 호남권('05.1운영), 중부권(민간사업자 모집중), 영남권(정부민간투자심의위원회 안전상정)
- 물류비절감을 위한 수도권 북부지역에 내륙화물기지 건설 시급
 - * 남북교역화물의 증가, 개성공단조성, 대륙통과화물발생 수도권 북부지역 LG.Philips LCD공장과 관련부품산업 등 물동량의 급속한 증가로 물류비절감을 위하여 빠른 시일내에 내륙화물기지 조성필요

3. 사업추진체계 및 지원방식

- 사업 수행주체 : 민간
- 사업진행절차 : 붙임

○ 지원형태 및 수준

- 인입철도, 도로 등 기간시설은 정부에서 직접 건설수행
- 건설비 40% 재정융자
- 수출입화물을 취급하는 ICD는 BOT사업으로 추진(수입보장 없음)

4. 사업기대 효과

○ 물류비용 절감 : 33,012백만원/년

○ B/C : 2.85

- 편익 : 369,587 백만원, 비용 : 129,535백만원
- NPV 240,052백만원, IRR 27.48

5.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 종전 내륙화물기지 민간투자방식은 BOO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수익성확보 곤란으로 민간투자사업이 저조하였음
- 화물터미널은 토지이용의 집약도(고밀도)가 높아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어 BOO사업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나, 수출입 화물을 취급하는 ICD는 토지이용의 집약도(고밀도) 낮아 수익성이 없으므로 BOT 사업으로 추진함이 바람직

작성기관	작 성 자	연 락 처
건설교통부 물류기획과	5급 김성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화 : 2110~8115-6 ▪ FAX : 504~9087

<붙임>

기관별 업무 분장 및 사업 흐름도

